

ICA사례연구

- 강명숙·김명훈·정은이·황정원 공역-, 『공공부문의 기록물 관리: 사례연구 3』, 진리탐구, 2008
-전상숙 역-, 『공공부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진리탐구, 2008

이 은 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공공부문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 총서 번역지원 사업 중 제 28권과 제 29권인 ‘공공부문의 기록물관리: 사례연구 3 (이하 사례연구 3)’과 ‘공공부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가 각각 번역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국제기록관리재단(IRMT)과 국제기록기구회의(ICA)는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최선의 기록관리 업무방식 도출을 목표로 교육프로그램 총서시리즈를 지난 1999년에 발간하였다. 한국 국가기록연구원에서 이 총서의 번역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연도가 2002년이었던 데다, 총서 시리즈의 권수가 30권에 달하여, 2008년 5월 현재까지도 이 총서 시리즈의 번역은 완결되지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못하였지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 10주년을 즈음하여, 번역 완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은 기록관리 훈련이나 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사람들의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제작된 주요 목적은 원격 교육 학습과정이나 강의나 워크숍 등을 위한 학습도구 또는 자습서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학 통합 교육 시리즈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된 역서는 사례연구와 실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기록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장에 대한 간접 경험과 기록학 관련 자료와 연구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선에서 일하는 기록관리 담당자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실무를 체득함으로써 자관의 기록관리 현장에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례연구는 공식 교육에서는 다루기 힘든, 경험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으로, 20세기 중반 의학, 재무학, 경영학, 행정학, 공학 등 기타 전문 교육영역에서 점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학생 및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이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기 힘들었던 현장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과정에서 실제 작업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강명숙 외 3인이 공역한 ‘사례연구 3’은 사례연구 시리즈(1, 2, 3)의 마지막 권으로, 사례연구 시리즈의 전체 사례 34개 중 사례 25번부터 사례 34번까지를 다루고 있다.

‘사례연구 3’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사례 25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산림위원회의 토종식물 되살리기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사례이다. 사례 25는 토종

식물 되살리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실례를 제시해 준다. 이 사례는 묘목장 업무에서 생겨난 많은 양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리계획과 정리지침, 정리지침 기술시 작성해야 할 서식에서부터 기록 처분/보유를 위한 평가 요청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자관에 고유한 정리 지침이나 보유일정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록관리자들이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는 종이기록 중심의 정리 및 평가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환경에 있는 현재 정부 부처 기록관리 담당자들에게는 기관 고유의 지침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뉴사우스웨일즈의 산림위원회 처럼, 전문적인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방대한 기록들에 대한 정리 및 처분 방안들은 지금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좋은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

사례 26은 ‘지방 기록보존소의 정보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구축계획’으로, 호주 퀸스랜드 주지방기록보존소인 카프리콘 연안 지방기록보존소에서 수행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설비와 기기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해준다.

사례 26은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광역 시도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모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기록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기록의 활용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이 사례연구 26의 예시는 새로운 기록관의 구축·설립 시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으며, 이미 기록관을 구축한 기관에서도 정보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례 27인 ‘지구 최후의 날까지 양심 지키기: 기록관리 전문가와 윤리문제’는 아키비스트들이 실무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 문제 상황들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이 사례는 아키비스트들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예기치 못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가상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거나 법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가급적 모든 가능한 요소 및 결과를 상정해 볼 것을 충고한다. 그러나 경력이 짧은 초보 아키비스트들에게는 넓은 시야에서 모든 가능한 요소를 고려해 보라는 충고는 언뜻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충고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다만, 이 사례에서 제시하는 가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접함으로써, 아키비스트라는 직종이 단지 생산되는 기록에 대한 기술적(technical)인 해법만을 제시하는 기능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권계하고 있다.

사례 28은 한 기업의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위젯이라는 제조회사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기업의 효과적인 기록관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방법들과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상사를 설득하는 편지, 제안서 등을 쓰는 능력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과 일정 작성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다.

이 사례는 최근 민간 영역,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경영진들에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력서 및 제안서를 쓰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사례 29는 ‘애드보커시(advocacy)에 대한 이해’로서 기록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기록보존소 내

부의 홍보기획안 작성에서부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까지 포괄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역자가 ‘애드보커시’라는 용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역어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기록관리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 발 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사례이다.

사례 30은 ‘기록관리에 대한 감독 사례’이다. 이 장은 주로 보존기록 통제에 대한 사례 제시를 통해, 보존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 즉, 보존기록 기술의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을 평가하는 부분과 컬렉션 기술의 정확성과 평가결정 재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사례 31은 ‘인사기록 사례연구’이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사기록이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되거나 무단 폐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와 인사부서, 그리고 기록관리 부서간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며, 인사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례 32는 ‘법률 기록 사례’이다. 이 사례는 가상 국가의 정치적 맥락과 법적 환경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정부 서비스 자원이 희박한 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법률 기록과 관련된 기록 관리와 규범적 맥락을 제시한다.

가상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인 법률 기록 관리를 위한 적절한 레코드키퍼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사례 33은 ‘버던트 섬 국립기록보존소 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에선 이상적인 국립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 정책 및 표준, 입법 등을 정비한 바탕 위에서 기록관리 정책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례 34는 ‘역사가 메리의 문서 수집’으로, 한 여성사학자의 개인 문서를 예로 들어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를 선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짚어본다.

한 여성사학자가 남긴 개인 문서에 대한 가치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문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통해 기록의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사례연구 3은 공역자 4명이 나누어 번역한 것으로, 역자 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번역어 및 문체의 통일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역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다소간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례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읽으면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책은 IRMT와 ICA가 기획, 발간한 ‘공공부문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서(교육프로그램 입문: Introduction to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r Records Programme), 용어집(Glossary), 추가자료집(Additional Resources for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기록관리 교육자료(Resources for Educators), 사례연구 작성: 편람(Writing Case Studies: A Manual)을 묶어 한권의 역서로 발간한 것이다.

먼저, 소개서(‘교육프로그램 입문: Introduction to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r Records Programme’)는 기록 보존교육의 필요성, 교육프로그램의 성격, 교육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 입문’은 ‘교육프로그램’이 각국이 필요로 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과 교육방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구조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용어집(Glossary)’은 ICA의 용어사업팀, 국제표준기구(ISO/TC46/SC3)와 정보·다큐멘테이션 용어 소위원회가 개발한 용어, 호주와 미국의 용어집, 그밖에 다양한 법률, 의료, 재무 및 경영 용어집들을 두루 참조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용어집은 관련 분야의 여러 용어집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는 균형 잡힌 개념정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다. 기록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편찬한 ‘기록학 용어사전(역사비평사, 2008)’에 제시된 용어와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기록학 용어사전’에 나오지 않은 용어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추가 자료집(Additional Resources for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은 교육프로그램의 모듈과 관련된 기타 분야에 관한 유용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 자료집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조직, 주요 정기간행물 목록, 교육프로그램의 모듈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간행물들에 대한 정보, 기록과 보존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리스트 서버 목록, 비디오 필름 및 비디오 제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관리 교육자료(Resources for Educators)’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모듈들을 교육현장에 요구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과 강사가 개별적인 필요에 맞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과제와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유수의 교육출판사들을 소개하는 한편, 기록관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과 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 작성: 편람(Writing Case Studies: A Manual)’은 사례연구가 기록관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특성에서부

터 시작하여, 사례연구와 관련된 교육노트의 구성과 그 구성요소들을 살펴본 뒤, 사례연구의 타당성 및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기초 자료집에는 기록관리에 관한 조직 및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소개정보가 풍부하게 실려 있는데, 역서가 발간된 시점이 ICA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1999년)와 시간차가 현저하므로, 관련 조직 및 기관에 관한 정보는 모두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조직의 변동에 따라 일부 확인되지 않는 곳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여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기관과 조직에 대한 정보가 이 역서에 가장 많이 집적되었으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듯싶다.

아무쪼록, 생생한 현장에의 간접 체험과 공공기관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록관리 업무의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연구’와 ‘기초자료집’의 발간의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